

기 원 문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꽃보라를 이루어 산하를 장엄하고, 향기로움은 마음까지 생명의 기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존엄으로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의롭고 공정한 시민의 광장은 미래의 빛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빛은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어둠을, 온 인류의 마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을 마주하고 정성으로 등을 밝히는 것은 선근 공덕의 인연이기에,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어우러진 고마운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행복의 등불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을 밝히는 것은 지혜로써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간절한 서원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소중한 인연 공덕으로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을 저마다의 마음에 담아 공업중생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세상에 희망을 비추고 마음에 행복이 들도록 서원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한줄기 바람으로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한 조각의 꽃잎으로 봄기운을 알듯이 희망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실천하도록 정진을 거듭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수승함과 선조의 빛나는 정신으로 모든 생명이 편안하게 살아가길 수 있도록, 모두의 정성으로 마음 깊이 불을 밝히고 세상을 맑게 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발원하오니, 부디 접수하시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